

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김용미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3.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 현황
 - 3.1.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
 - 3.2. 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
4.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활성화 방안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증가 배경과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의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가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를 논의하였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네 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각 시기의 정책적 특징과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취업한 결혼이민자들과 구직 중인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그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결혼이민자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주제에 결혼이민자, 취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활성화

1. 서론

88올림픽을 전후로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을 시작으로 근래에는 국제 결혼으로 인해 결혼이주민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¹⁾에서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은 법정계획을 제1차(2008-2012), 제2차(2013-2017), 제3차(2018-2022)로 진행을 하였고 현재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2023-2027)²⁾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2023)에 의하면, 제1차 제2차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 완료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는 있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제1·2·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지원을 세우고 중과제로는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고를 정책과제로 수립하였다.

다문화사회가 ‘도입 및 성장기’, ‘정착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서 결혼이민자들 또한 ‘초기적응 및 사회진출의 활성화’에서 ‘사회진출 욕구 증대 및 경제·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제1차, 제2차, 제3차

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사회적 참여 강화·확대'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돌입하였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과제 중에서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결혼이민자의 자립·취업역량을 강화 지원하고 취·창업 서비스 등을 내실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이다(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2023-2027).

결혼이민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에서 취·창업 지원의 서비스 내실화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안정과 그로 인해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취업(employment)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을 뜻한다. 또한 취업자란 '취직한 사람' 즉,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을 뜻한다.³⁾ 이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⁴⁾를 말한다. 즉,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김소라, 2016).

우리 사회는 취업을 통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의 의미만을 가지고 취업을 생각하기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일 경우 이러한 개념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의 부담과 가부장제에 기초한 성별 분업이 취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박미은 외, 2012: 29-54). 기존 우리 사회의 기혼 여성들 또한 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뚫고 인정받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 출신이라는 취약한 신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기혼 여성들이 처한 현실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한 이주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3) 표준국어대사전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정착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으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혹은 가족 해체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게 경제적 안정과 관련하여 취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및 취업은 가족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질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참여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 및 취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성 확보와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지역 사회 및 가족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금전적인 수입을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사이에 있어서 불평등한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한국 사회 적응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 및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선행연구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로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최근에는 장기 거주에 들어선 그들을 인적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취업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12

건 있는데, 이것을 4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관련 연구이며, 안일선(2021, 2022a, 2022b), 김선정(2019) 등의 논문이 있다. 안일선(2022a)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어 교육이 관련성 있을 것이며, 한국어 교육이 취업에 있어서 효과가 낮은 이유는 취업지원과 법령이 관련 있을 것 이다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을 하였다. 연구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과 취업 간에 관련성이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어 능력과 직업의 실무능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목적 한국어교육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법령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일선(2022b)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는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재직 중인 이중언어 교사 등 4개의 전문직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를 활용한 분야로 제시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을 거쳐 국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중언어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분야에서 유리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안일선(2021)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환경을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환경과 제도적인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분석, 자료 및 문헌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로 탐색적인 연구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남았고, 후속 연구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선정(2019)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의 교수요목을 설정하였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예로 실제적 수업 구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업 이후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

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로 취업경험이나 학습경험 연구이며, 이성순(2019), 황해영 외(2019), 김미자 외(2015), 박신영 외(2015) 등의 논문이 있다. 이성순(2019)은 결혼이민자의 취업경험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취업경로 및 취업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연구의 대상은 대전지역에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 10인이며 자료의 수집은 심층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황해영 외(2019)는 재한 중국 동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역할 과 수행 및 대처 등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취업을 위한 역량 함양 등 여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김미자 외(2015)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참여와 취업의 경험을 적응과 성장 그리고 차이와 저항이라는 전이학습 과정을 통해 나타내고 그 의미를 깊게 탐색해 보았다. 연구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및 참여관찰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써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직업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진정한 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삶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박신영 외(2015)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이후,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축적한 학습활동 및 취업활동을 바탕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학습활동 및 취업활동은 선형적 단계적이기보다는 반복적 순환적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취업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연구이며, 황민철(2017), 함필주 외(2015) 등의 논문이 있다. 황민철(2017)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 하였다. 또한, 이차적 자료 분석으로는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취업과 임금 및 근로시간을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지표로써 고려하였고, 성

향 점수매칭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취업의 양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인 부분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함필주 외(2015)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인구사회적인 요인,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그리고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구직의지와 구직활동, 고용유지, 구직 실패 등에 따르는 재취업에 대한 의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컨설팅의 기초자료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취업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 취업을 위한 여러 기관의 역할 연구이며, 이현영(2024), 김현민(2015) 등의 논문이 있다. 이현영(2024)은 통계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활동의 필요성과 취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기관의 현황 및 지원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새일센터의 개선점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 제안하였다. 김현민(2015)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4가지로 분류 분석한 후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내부에서 도출해 낼 수 없는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야만 하는 것을 외적인 요인으로 보았고, 내적인 요인은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노력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해결 가능한 요인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내적인 요인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외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한 것도 물론 존재하고 있지만 연구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외적인 요소 즉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종래의 연구에서는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 활성화 방안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취업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 현황

3.1.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동법 제6조 1항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9년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김복태·이승현, 2015: 53)되었고 이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 된 이후 현재는 제4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23년-2027년)이 수립·이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표 1〉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

세부과제	내용	담당부처
적합 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 설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고용센터에서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직업훈련 기회제공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취업성공 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에서의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의 기회제공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채용기업 신규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추진	취업자 1인당 연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확대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일자리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아동복지교사의 채용	보건복지부
	의료코디네이터의 양성	보건복지부
취업지원 관련기관 간 정보교육 및 연계 강화	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출입국사무소, 민간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 공동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기초농업교육	농림수산 식품부
	1:1 맞춤형 영농교육	농림수산 식품부

출처: 여성가족부(2012).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2년도 시행계획, pp.53-64

김복태·이승현(2015).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p.55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결혼

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의 활성화’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점과제는 6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 중심의 적합 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둘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셋째, 고용노동부 중심의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추진. 넷째,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체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다섯째, 고용노동부 중심의 취업지원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연계 강화. 여섯째, 농림수산식품부 주체의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기초 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이 세부 과제로 되어 있다.

〈표 2〉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

과제		부처
일자리 확대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의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사회적 기업의 지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의 민간위탁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다문화 무역인의 육성 사업	KOTRA
직업 교육 훈련 지원	특화 훈련과정 확대, 자비부담 면제(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의 특화된 직업 교육 훈련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의 인턴제 운영	여성가족부
	기초 및 전문 영농교육 실시	농림축산 식품부
	결혼이민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용센터의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공공 분야의 결혼이민자를 활용 일자리 발굴 및 관리	고용노동부	

출처: 김용경 외(2016),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연구」, 『여성가족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 기반의 취업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라는 영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중점과제로 일자리 확대와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일자리 확대 과제에서는 총6개의 세부과제들이 직업교육훈련 지원 과제에서는 총7개의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일자리 확대 과제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보건복지부 주체의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로써 외국인 코디네이터의 양성 과정의 사업. 둘째,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주체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의 참여 확대 사업. 셋째, 고용노동부 주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넷째, 고용노동부 주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지원)사업. 다섯째, 고용노동부 주체의 결혼이민자 민간위탁 취업지원 사업. 여섯째, KOTRA 주체의 다문화 무역인 육성 사업의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고용노동부 주체의 특화훈련과정 확대, 자비부담 면제(내일배움카드제). 둘째, 여성가족부 주체의 결혼이민여성 특화 직업 교육 훈련. 셋째, 여성가족부 주체의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넷째, 농림축산식품부 주체의 기초교육 및 전문 영농교육 실시. 다섯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체의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섯째, 고용노동부 주체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용센터의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곱째, 고용노동부 주체의 공공 분야의 결혼이민자 활용 일자리 발굴과 관리가 세부 과제(황민철, 2017)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중점과제인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의 활성화’에서 조금더 진전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의 영역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진출로의 한 단계 발전된 취업지원 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

과제	내용	담당부처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추진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법무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안내	교육부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기초교육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과 연계 및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취·창업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참여 기회 확대	결혼이민자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여성가족부

과제	내용	담당부처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	농촌진흥청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출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을 인용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 기반의 취업 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중점과제는 다시 자립역량 강화 그리고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자립역량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 중심의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둘째, 여성가족부 중심의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자립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및 내실화. 셋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다섯째, 법무부 중심의 사회통합 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여섯째,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

취·창업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여성가족부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둘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셋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 넷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중심의 결혼이민자의 강점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 여섯째,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취·창업 지원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

중점과제의 세 번째인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결혼이민자의 정책 수립과정의 참여 확대. 둘째, 여성가족부 중심의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셋째, 농촌진흥청 중심의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 넷째,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중심의 다양한 자조 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 중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 해당된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의 영역을 통해 중점과제로 제시되었던 일자리 확대와 직업교육훈련지원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의 큰 차이점은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 결혼이민자들을 정책 수립 과정 등에 포함시키는 등 좀 더 결혼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

과제	내용	담당부처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결혼이민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여가부, 교육부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지자체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중기부 고용부

출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관계기관 합동, 2023)을 인용하여본 연구자가 재구성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 기반의 취업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중점과제는 다시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과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 중심의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둘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중심의 결혼이민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셋째, 농업식품부와 지자체 중심의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 둘째,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 해당된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넘어가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정책의 기본계획이 1차에서 3차까지는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4차 다문화 가족정책은 여러 기관부처의 합동으로 취업지원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논의 될 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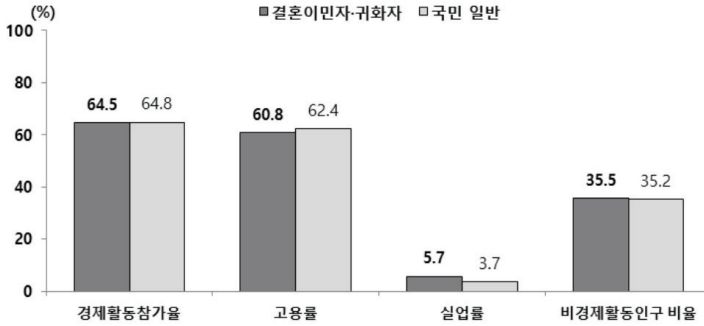
3.2. 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

앞서 우리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의의와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연구 현황,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⁶⁾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결혼이민자는 자국에서의 경제적인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5%,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35.5%이며, 18세 이상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3%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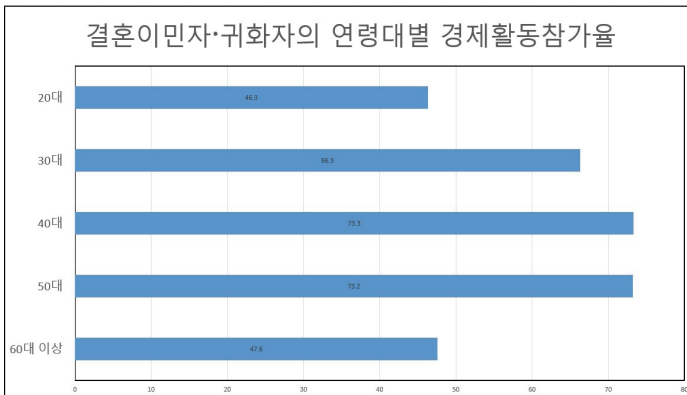
아래 그래프 <그림 1>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을 국민 일반과 비교한 표이다.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18세 이상)(국민 일반 부분)

<그림 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국민일반 비교)⁷⁾

이 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일반 국민의 수치와 별다르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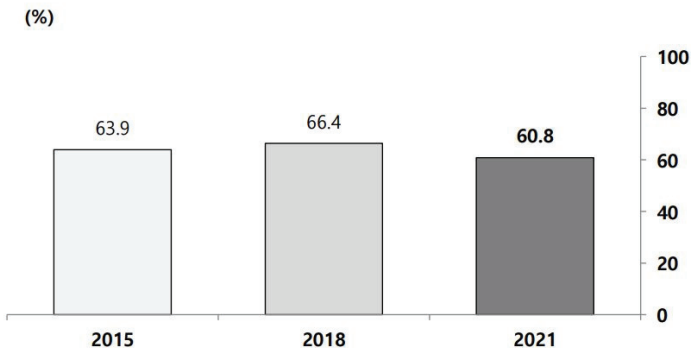


<그림 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⁸⁾

7)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1).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20대 46.3%, 30대 66.3%, 40대 73.3%, 50대 73.2%, 60대 47.6%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30대, 40대, 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20대와 6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러한 통계가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및 별거 상태의 이민자와 미혼인 이민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각각 79.3%, 78.3%로 높은 반면에 배우자와 사별한 이민자 가운데에는 50.9%만이 경제활동 참여를 하는데 사별 집단 특성상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있어보인다. 출신 국적별로는 남부아시아(79.7%), 미주·유럽·대양주(72.5%), 한국계 중국(69.5%), 기타(68.5%) 출신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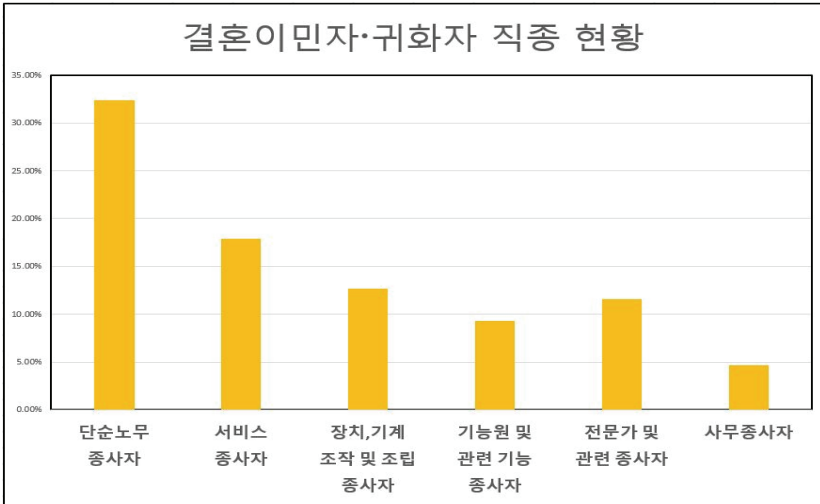
〈그림 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2015, 2018, 2021)⁹⁾

〈그림 3〉의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2015년과 2018년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2018년도 대비 5.6%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경기 하락과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8)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9)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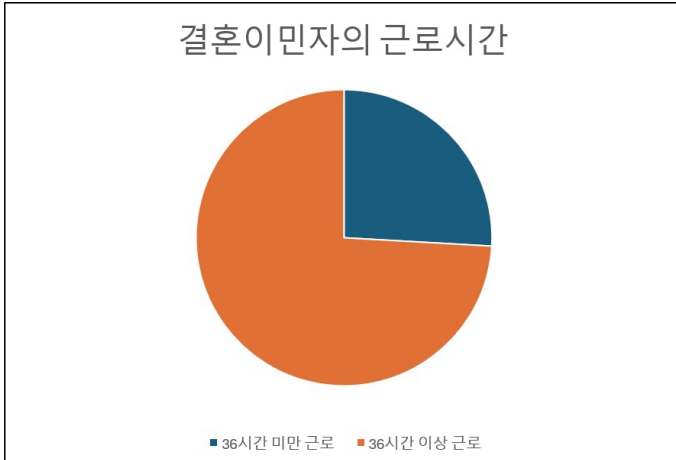
3.2.1. 취업한 결혼이민자 근로 현황



〈그림 4〉 결혼이민자·귀화자 직종 현황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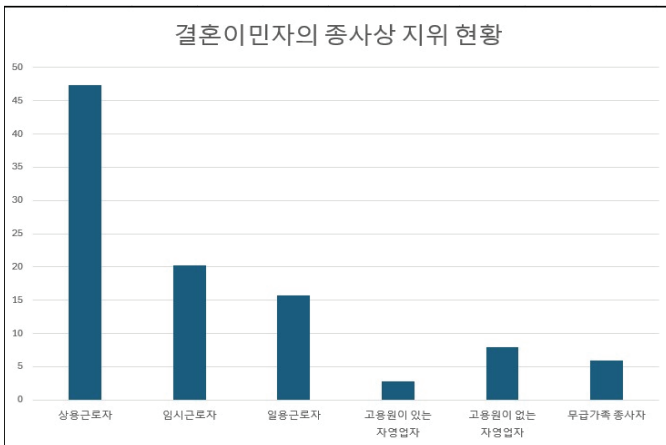
〈그림 4〉의 취업을 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현황에서는 32.4%가 단순노무 종사자로 서비스 종사자는 17.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9.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1.6%를 나타냈다. 반면에 사무 종사자는 4.7%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단순노무, 서비스, 장치·기계 조작과 같은 특별한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 없는 직종에는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18년도에 조사했던 10.7%보다는 11.6%로 수치가 많이 올라갔으나, 사무 종사자 등의 직종은 2018년도 보다 1.3% 낮아진 4.7%를 나타냈다.

10)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5〉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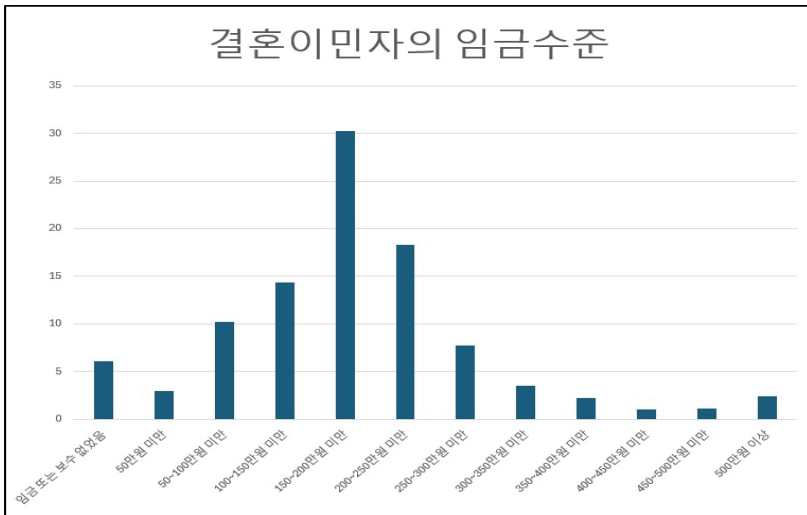
〈그림 5〉의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에 따르면 36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일하는 결혼이민자는 25.9%이고 36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결혼이민자는 74.1%로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치가 크다.



〈그림 6〉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현황¹²⁾

11)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6〉의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근로자는 47.4%, 임시근로자는 20.3%, 일용근로자는 15.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0%, 무급가족 종사자는 5.9%로 결혼이민자가 근무하는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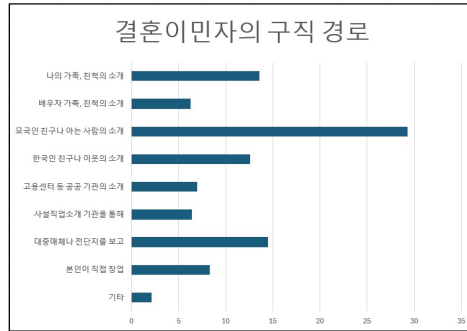


〈그림 7〉 결혼이민자의 임금 수준¹³⁾

〈그림 7〉의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150-200만원 미만이 30.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200-250만원 미만이 18.3%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임금의 수준은 100-2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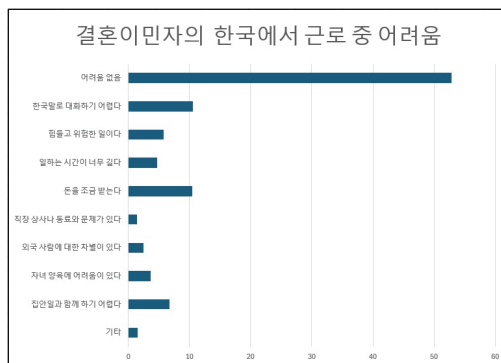
13)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8〉 결혼이주여성의 구직 경로¹⁴⁾

〈그림 8〉의 결혼이민자의 구직 경로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중 매체나 전단지를 보고 구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으로는 나의 가족, 친척의 소개를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을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이 소개가 7.0%, 사설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서 6.4%를 차지한다.

정식적인 기관을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구직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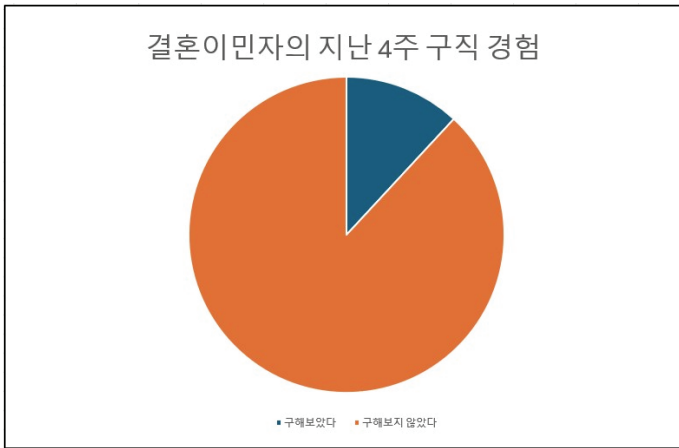


〈그림 9〉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 근로 중 어려움¹⁵⁾

14)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9〉 근로 중 어려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 한 결혼 이민자는 5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가 10.5% 세 번째 어려움을 꼽은 부분은 돈을 조금 받는다가 10.4%를 차지했다.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어려움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2.2. 취업 준비 중인 결혼이민자 구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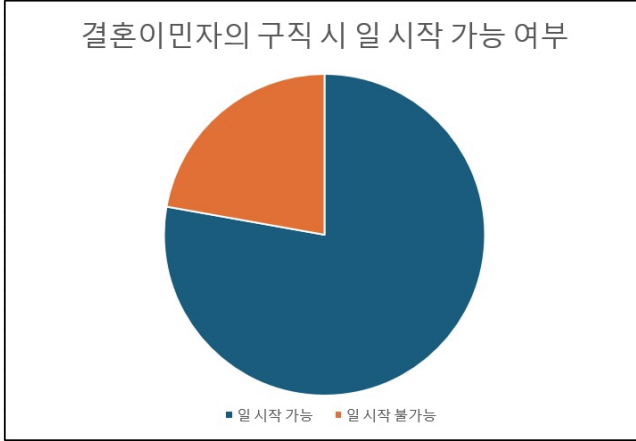


〈그림 10〉 결혼이민자의 지난 4주 구직 경험¹⁶⁾

〈그림 10〉의 지난 4주간의 구직의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로 89.4%가 구해보지 않았다고 하였고 구해보았다고 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구직자 비율이 높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에 구직을 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 때 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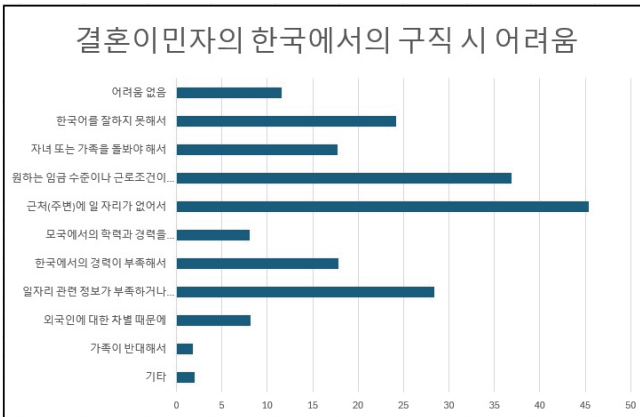
15)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16)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1〉 결혼이민자의 구직 시 일 시작 가능 여부¹⁷⁾

〈그림 11〉의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구직 시 일 시작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전체의 79.1%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결혼이민자의 77.8%가 구직 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구직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구직 시 어려움¹⁸⁾

17)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2〉의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구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는 근처(주변)에서 일자리가 없어서가 45.4%로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36.9%,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의 방법을 몰라서가 세 번째로 구직할 때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결혼이민자가 구직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주변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많이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보다는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2018년도 수치와는 달라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활성화 방안

결혼이민자의 취업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과제를 넘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국가와 지역사회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기존 취업 지원 정책과 그에 따른 현황을 검토하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및 사후 관리, 네트워크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활성화 방안을 크게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평가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눠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활성화 방안이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맞춤형 취업 훈련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취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 훈련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 훈련은

18)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연구자가 재구성.

맞춤형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취업 훈련이 대부분이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취업 상황에 맞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기존 경력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고, 직장 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직장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취업 역량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세금 혜택이나 채용보조금을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자립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결혼이민자가 실제 창업을 할 경우 창업 초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다양한 아이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창업을 위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관련 컨설팅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여 결혼이민자가 가정을 돌보고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비중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 가운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육아와 경제 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등을 실시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의 조성 및 근무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자 취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업 지원의 체계적 평가 방안이다. 체계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에게 실제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취업이 된 이후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나 지역사회 등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근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거나 이전에 경험했던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받은 결혼이민자들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효용성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성공 사례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실패의 사례와 성공의 사례 모두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교육과 취업 성공 사례 홍보 등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취업의 사례의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취업의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취합 분류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의 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이들을 모델로 삼아 유사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취업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다른 결혼이민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 후 사후 관리 및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취업 전 취업 훈련 및 여러 가지 교육, 일자리 확대 등 취업 전 활동 지원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취업 후의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후 관리를 통해 취업 전반에 관한 현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 한 결혼 이민자들의 사후 관리를 전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각 직업 분야별 부분적으로 행하는 취업 후 사후 관리의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네트워킹 지원은 결혼이민자들이 구직 경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지원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취업 이후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료 결혼이민자들과 네트워킹 형성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취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5. 결론

한국인과 결혼하여 성인이 된 이후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결혼 이민자들은 낯선 환경과 낯선 문화, 낯선 언어를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낯선 것들을 모두 익히기도 전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아기를 낳고 아이를 육아 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온전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결혼이민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가릴 것도 없이 일터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결혼이민자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류·분석한 결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분류와 분석은 아니었지만, 연구의 상당 부분이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내적인 부분에 치중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자기역량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적인 부분 즉 결혼이민자가 좀 더 쉽게 자기역량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았던 것에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수립·이행하고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정부를 주축으로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고 여러 정부 부처가 과제를 나누어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2012년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안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과 관련 내용들이 있다.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완료 이어 2차·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은 2023년-2027년 4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정부 부처가 지원의 과제를 나누어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고 있는지는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에서부터 3차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이어지면서 여러 부처가 취업에 대한 중점과제를 나누어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명칭은 다르나 사업의 내용이 중첩되는 경우와 1차에서 3차로 가면서

부처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제대로 취업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가기 위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만이 주관한 기본계획이 아닌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각 부처 간의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정책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위의 방안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앞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자·전주성(2015). 전이학습 관점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과 취업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이중언어강사를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119-141쪽.
- 김복태·이승현(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5쪽.
- 김소라(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19).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한국어교육의 실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51-68쪽.
- 김유경 외(2016).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연구. 여성가족부, 8-9쪽.
- 김현민(2015).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한국언어문화학, 75-95쪽.
- 박미은 외(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9-54쪽.

- 박신영·이병준(2015).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학습경험에 따른 취업경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87-106쪽.
- 안일선(2022a).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575-602쪽.
- 안일선(2022b).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이중언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분야 취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9-164쪽.
- 안일선(202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취업환경 개선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133쪽.
- 이성순(2019). 근거이론을 적용한 대전지역 결혼이민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7-42쪽.
- 이현영(202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도 새일센터의 역할. 다문화콘텐츠연구, 73-102쪽.
-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53-64쪽.
- 여성가족부(201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39-40쪽.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16-19쪽.
- 여성가족부(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7-29쪽.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51-299쪽.
- 함필주·강기정(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및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25-541쪽.
- 황민철(2017).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효과성 평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39-171쪽.
- 황해영·김영순(2019).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120쪽.

필자 소개

성 명 김용미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pingue123@naver.com

Abstract

Study on the Employment Status and Activation Measures of Marriage Immigrants

Kim, Yong-m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employment support policy and current statu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proposes activation measures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arriage immigrants. First, we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increase in marriage immigrant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 Korean society. We discuss the positive effects of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significance of marriage immigrants' employment and related prior studies. We analyz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from 2008 to 2027 four times and compare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each period.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based on the 2021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and specifically examine the reality of employed marriage immigrants and job-seeking marriage immigrants. Based on this,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olicy support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marriage immigrants, and suggested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and policy improvement, and suggested several activation measure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nding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to solve the employment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s.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Employment,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Activation

투고일 2025. 02. 09 / 심사일 2025. 03. 12 / 게재확정일 2025. 03. 18

